



일본기업의 사회적 책임 : 동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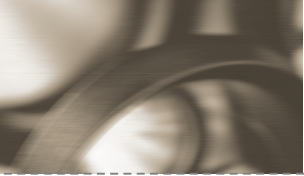
김명중 (일본경제연구센터 연구원)

■ 머리말

최근 들어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SR이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CSR은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사회 발전 단계의 차이에 의해 CSR의 의미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CSR의 도입 배경과 추진상황, 그리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일본 경단련)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각 기업의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일본 기업이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CSR의 도입 배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SR은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입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이념과 정의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CSR을 논의하고자 한다.¹⁾ 일본에 있어서 CSR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은 1956년에 경제동우회의 결의사항인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경제동우회는 “현 시대의 경영자는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단지 자기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경제 및 사회와의 조화에 있어서 생산의 모든 요소를 가장 유효하게 결합하여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에 CSR이 제기된 것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이 사회적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 결과 공해문제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²⁾ 이로 인해 주민운동과 피해자운동이 일어나고, 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성악설까지 제기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 공해대책기본법이 성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석유위기 이후 생활물가 급등에 의해 기업 이익 지상주의가 비판을 받음에 따라, 1974년의 상법 개정시에 국회 부대결의사항에서 CSR이 거론되었다. 이후 기업측에서는 공해부를 신설하였고 이익 환원을 위한 재단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1985년의 플라자합의 이후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거품경제가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장시간노동과 직장에서의 남녀간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나은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고 사회공헌 활동단체와 기업메세나 운동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거품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은행의 파탄, 건설업의 담합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도 기업 불신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경단련은 현재 일본의 CSR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행동헌장’을 책정하게 된다. 2003년에는 기업 불상사가 계속 되어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대두되었으며 일본 경단련은 기업백서에서 21세기 경제사회를 전망하면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CSR의 본질을 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의 촉진 수단으로서 경영자에 의한 셀프체크(현상에 대한 평가와 목표 설정)에 주목한 ‘기업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2. 일본기업의 CSR에 대한 의식

2003년 경제동우회는 회원 소속기업 877개사를 대상으로 ‘기업평가기준’을 이용한 자기평가를 의뢰하였다. 의뢰한 기업 중에서 자기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229개사로 26.1%의 응답률을 보였다.

1) 일본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래는 에도시대의 오우미(近江) 상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우미 상인의 경영이념 중에는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세상도 좋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특히 ‘세상도 좋고’라는 부분은 현대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4대 공해병 :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병, 니이가타현의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요카이치천식


〈표 1〉 일본의 CSR 시대구분

| |
|--|
| 제1기 (1960년대) 산업공해에 대한 기업 불신 및 기업성악설 ⇒ 주민운동의 활성화, 현장에서의 개별 대응 |
| 제2기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기업의 이익 지상주의 비판 ⇒ 기업에 공해부 신설, 이익환원재단 설립 |
| 제3기 (1980년대) 거품경제의 확대, 지가급등 ⇒ 사회공헌활동단체, 기업메세나 |
| 제4기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와 기업윤리문제, 지구환경문제 ⇒ 경단련 현장을 책정, 지구환경부 설치 |
| 제5기 (2000년대) 계속되는 기업 불상사,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대두 ⇒ SRI펀드의 등장, CSR조직의 창설 |

자료 : 川村 雅彦(2005), 『日本の「企業の社会的責任」の系譜(その2)』- CS Rの變遷は企業改革の歴史-ニッセイ基礎研 REPORT 2005.5

회답을 하지 않은 기업이 자기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서 CSR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시
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와 데이터의 수집 등을 사내에서 대응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³⁾ 동 조사는 「시장», 「환경», 「인간»,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
하였는데 「시장」에 있어서는 각 기업별로 독자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어 그 형태나 성과는 천차만
별인 걸로 나타났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그 대응책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과 대기업에서는 환경 부하를 줄이는 대책과 기업공개 등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
다. 「인간」분야는 여성과 외국인 인력의 활용 등 고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서 제

3) 회답을 하지 않은 648개 사 중에서 자기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응답한 98개 사의 자료.



기되었다. 「사회」분야에서는 특히 국제사회에 있어서 CSR의 논의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사회 보고서, NGO와의 협력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책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분야에서는 과반수의 기업에서 경영자의 선임과 평가 그리고 해임에 있어서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제도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회답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쳐 회원기업과 도쿄증권거래소 1부 및 2부 상장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동우회의 조사⁴⁾에 의하면 기업 불상사의 주된 원인은 「경영자」라고 대답한 비율이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CSR에 포함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CS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3년 전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93%, 「법령 준수」가 81%, 「수익 확보와 납세」가 75%, 「주주에의 배당」이 68%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2005년의 조사에서는 「인권」(32.3% → 68.3%)과 「사회공헌」(21.8% → 45.7%)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51.6% → 72.3%)와 「환경」(61.9% → 80.8%) 관련 항목이 3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CSR이 3년 전에 비해 기업 내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CSR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약 69.1%의 경영자가 「기업전략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회답한 데에 비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회답한 경영자는 0.4%에 지나지 않아 CSR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SRI(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으며 일상적인 기업경영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회답이 2002년의 8.1%에서 23.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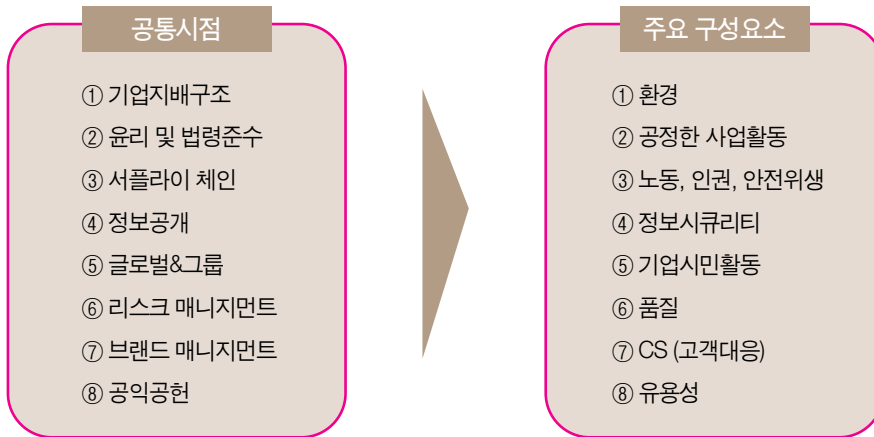
3. CSR 추진사례

1) 마츠시다전기

마츠시다전기에는 창업 이래 마츠시다 고노스케 창업자가 확립한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 축으로 하는 불변의 경영이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을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말하는 CSR의 기본개념

4) 経済同友会(2006), 『企業の社会的責任(CSR)に関する経営者意識調査』.

[그림 1] 마츠시다전기의 구체적인 C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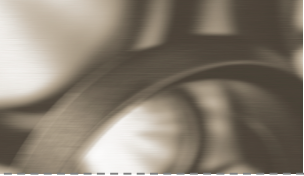
자료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5), 「経済Trend」, 2005年 7月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츠시다전기는 2003년 10월에 CSR의 전임부서인 CSR 담당실을 발족하여 CSR의 8개 구성요소를 8개 시점에서 체크해 나가는 PDCA(Plan, Do, Check, Action)사이클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다(그림 1).

나아가, CSR의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사업을 통한 사회에의 공헌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품개발에도 CSR의 기본이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CSR에 대한 대응책을 완전히 새로운 입장에서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래 경영이념에 바탕을 두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시세이도

시세이도의 CSR활동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창업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97년에 CSR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THE SHISEIDO WAY (시세이도 기업행동 선언)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CSR실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THE SHISEIDO CODE (시세이도 기업윤리 및 행동기준, 1997년 제정, 2003년 개정)를 제정하였으며, 2004년에는 시세이도그룹의 CSR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사장 직속의 CSR부를 신설하였다. 시세이도의 CSR활동의 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장 및 미용관련 영역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 ② 고객의 90%, 사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활력 있는 조직풍토를 구축하기 위한 남녀 공동참가추진, 육아휴업자지원제도의 개발과 타사와의 판매사업, 사업소 내의 보육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③ 미와 아트의 영역으로 메세나(예술문화지원) 활동으로 1919년부터 시세이도 갤러리의 신진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각종 아티벤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4. 사회공헌활동

일본 경단련에서는 1991년부터 회원기업과 1% 클럽법인회원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출 및 사례조사와 함께 CSR과 사회공헌활동의 관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인 430개 기업이 회답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출 총액은 총 1,508억 엔으로 1사 평균 3억 5,100만 엔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은 판매액의 0.09%, 경상이익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⁶⁾

〈표 2〉 사회공헌활동 연도별지출액

(단위 : 사, 억엔)

| 연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회답 기업수 | 376 | 360 | 309 | 323 | 342 | 316 | 369 | 430 |
| 총금액 | 1,557 | 1,376 | 1,246 | 1,345 | 1,170 | 1,190 | 1,232 | 1,508 |
| 평균금액 | 4.14 | 3.82 | 4.30 | 4.16 | 3.42 | 3.76 | 3.34 | 3.51 |

자료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6), 『2004年度社会貢献活動実績調査結果』.

5) 경상이익이나 가치분소득의 1% 상당액 이상을 자주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려고 하는 기업과 개인.

6)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6), 『2004年度社会貢献活動実績調査結果』.

〈표 3〉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지출 비율

| | 사회공헌활동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
|-----------------|-----------------------|---------------|
| | 2003년도 (330사) | 2004년도 (395사) |
| 사회복지 | 7.8% | 5.8% |
| 건강, 의학 | 8.3% | 4.8% |
| 스포츠 | 7.1% | 6.7% |
| 학술, 연구 | 13.5% | 14.0% |
| 교육, 사회교육 | 10.0% | 12.6% |
| 문화, 예술 | 17.4% | 18.7% |
| 환경 | 12.9% | 11.5% |
| 사적, 전통문화보존 | 0.8% | 0.4% |
| 지역사회활동 | 8.7% | 10.0% |
| 국제교류, 협력 | 3.2% | 3.4% |
| 재해피해지 지원 | 0.6% | 4.2% |
| 방재마을 만들기(마치즈쿠리) | | 0.2% |
| 인권 | 0.4% | 0.1% |
| NPO 기반형성 | 0.3% | 0.2% |
| 정치기부금 | 1.2% | 1.3% |
| 그 외 | 7.8% |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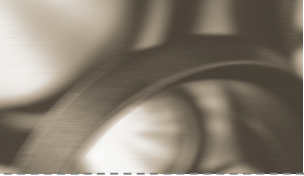
자료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6), 『2004年度社会貢献活動実績調査結果』.

〈표 4〉 연도별 기부금액

(단위 : 사, 억엔)

| 연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회답 기업수 | 357 | 306 | 318 | 336 | 301 | 366 | 430 |
| 총금액 | 883 | 787 | 873 | 785 | 796 | 829 | 1,032 |
| 평균금액 | 2.47 | 2.57 | 2.74 | 2.34 | 2.64 | 2.27 | 2.40 |

자료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6), 『2004年度社会貢献活動実績調査結果』.



<표 3>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사회공헌활동의 지출 비율을 분야별로 나타내고 있다. 지출총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 및 예술분야로 2003년도의 17.4%에서 2004년도에는 18.7%로 증가하였다. 「재해피해지 지원」분야에서 지출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데에 비해 「건강 및 의학」분야는 지출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04년도의 총 기부금액은 1,032억 엔으로 2003년보다 23.5% 증가하였으며 평균 기부금액도 2억 4천만 엔으로 2003년도에 비해 5.7% 증가하였다.

CSR과 사회공헌활동의 관계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CSR에 대한 관심증가가 자사의 사회공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기업이 297사로 회답기업의 65.4%를 차지하였다. 주요한 영향으로 「정보공개 강화」를 드는 기업이 4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본방침의 재검토」와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각각 35.7%와 35%를 차지하였다.

5. 일본에 있어서 CSR의 향후 과제

다니모토⁷⁾는, 향후 일본 기업이 CSR을 추진해 가기 위한 과제를 미시레벨(개별 기업의 과제)과 거시레벨(정부를 포함한 기업 사회 전체의 과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미시레벨의 과제로서 기업은 CSR을 도입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있어서 기업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과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시레벨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활동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및 평가하고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NGO 및 NPO를 육성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CSR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CSR기준에 바탕을 둔 정부조달, CSR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공적연금의 SRI 운용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단체, 환경과 소비 그리고 사회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NGO, 노동조합 등이 참가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포럼」과 같은 장을 설치하여 논의해 나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KLI**

7) 谷本寛治(2004), 『CSR経営 - 企業の社会的責任とステイクホルダー-』, 中央経済社.

- 川村 雅彦(2004),『日本の‘企業の社会的責任’の系譜(その1)－CSRの変遷は企業改革の歴史－ニッセイ基礎研 REPORT』, 2004. 5
- 川村 雅彦(2005),『日本の‘企業の社会的責任’の系譜(その2)－CSRの変遷は企業改革の歴史－ニッセイ基礎研 REPORT』, 2005. 5
- 経済司友会(2003),『第15回企業白書 - ‘市場の進化’, と社会的責任経営』
- 経済司友会(2004),『日本企業のCSR : 現状と課題』
- 経済司友会(2006),『企業の社会的責任(CSR)に関する経営者意識調査』.
- 工藤 正 その他(2005),『CSR経営と雇用－障害者雇用を例として－』,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32
- 谷本寛治(2004),『CSR経営－企業の社会的責任とステイクホルダー』, 中央経済社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5),『経済Trend』, 2005年 6月.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5),『経済Trend』, 2005年 7月.
-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06),『2004年度社会貢献活動実績調査結果』.